

“주권적 행위” VS “무모한 훈련”

여야, 연평도 사격훈련 놓고 극심한 시각차

국방위·외통위서도 ‘안보 공방전’ 치열

여야는 21일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의 성격에 둘러싸고 치열한 ‘안보 공방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격 훈련에 대해 “통상적이고 당연한 훈련이자 주권행위”라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모한 훈련”이라며 정면충돌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토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도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면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 “국내적으로 예산 날치기로 보여준 ‘본배정치’를 안보정국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어제 사격훈련은 일상적 사격훈련이 아니라 군사작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어떤 경우든 손해 볼 일이 없으며, 만약 북이 포격대응하고 무력도발하면 나라 전체를 안보정국으로 이끌고 가면서 정치적 독재를 가속화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여야 간의 견해차는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번 사격훈련은 당연히 해야 할 훈련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훈련”이라며 “다만 지금은 여기에 만족할 때가 아니고 북한군의 또 다른 기습을 대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동 의원은 “북한이 협박한다고 해서 사격훈련을 안하는 군대는 필요없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연평도 도발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속과 군 면제자들이 많아 안보와 외교에 무능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던

기 위해 현 정부가 국면전환용으로 훈련을 실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사격훈련 재개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에 297명, 금강산에 14명이 있었는데 북한에 의해 이들이 인질로 잡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했다”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진 국방장관은 남북 간의 전면전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면전은 북한이 불리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든 내부 체제문제에 있다. 내부 체제 안정이 안되는 이상 돌파구를 남측 도발로 찾을 가능성이 있어 철

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실시한 연평도 사격훈련의 시기 결정에 대해 김 장관은 “합참의장이 건의하고, 결정된 이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훈련에 동원된 사격 발수에 대해서는 “적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어서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통위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전에 이어 해상 사격훈련까지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와 유엔 안보리 등에서 우리 군의 훈련 재개는 영토 수호를 위한 기본 조치”라며 “이 문제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포 사격 질타하는 4성 출신 이진삼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포격훈련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평뉴스

한나라, ‘野 사격중지’에 파상공세

조전혁 ‘민노당은 北 노동당 즐겨정당이나’ 원색 비난

한나라당은 21일 사격훈련 중지를 촉구해온 야당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이 ‘주권적 행위’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전날 우려했던 북한의 추가도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야(對野) 공세에 힘이 실린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서해 5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려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훈련 재개는 영토 수호를 위한 기본 조치”라며 “이 문제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사격훈련) 중지를 요구했는데, 이는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비겁한 패배주의”라며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 주권을 포기하는 정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조전혁 의원은 “이번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즐겨정당이나”며 “민노당이 조선노동당의 괴뢰정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자매정당과 비슷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북한의 추가도

발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방·외교적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도발해도 철저히 응징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 데 이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 북한 도발로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황 부의장은 “중국, 러시아가 사격훈련 중지를 요구한 것은 내정간섭 행위”라며 “군은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 대응태세를 갖추고, 당당하게 훈련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곽 드러나는 ‘박근혜 정책브레인’

안중범·신세돈·김영세·김광두·최외출 핵심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자문그룹인 정책 브레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자문그룹은 경제, 복지, 외교·안보, 교육 등 분야별로 5~6명 정도로 박 전 대표의 지난 3년간 격주마다 분야별 정책을 맡은 핵심 인사들과 현안을 놓고 학습을 하고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분야별 팀을 맡은 책임자급 인사들로 안중범(성균관대) 신

세돈(숙명여대) 김영세(연세대) 김광두(서강대) 최외출(영남대) 교수 등 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 경선 이전이나 경선 당시부터 박 전 대표를 도와온 인사들이다.

지난 21일 박 전 대표가 국회에서 개최한 ‘사회보장기법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안중범 교수, 서울대 최재성, 안상훈 교수가 복지 분야에 대해 박 전 대표와 깊은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

난 1990년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김종민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사회보장기법법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자문역을 하면서 복지 분야 브레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후문이다.

박 전 대표가 큰 관심을 가진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브레인은 지난 9월 발간된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리더십’ 책자의 공저자 및 편집 자문위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정근모·이상의 전 과학기술처 장관, 금동화 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권오갑 전 과기부차관,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격훈련으로 ‘날치기 정국’ 호도”

손학규 “대통령은 국민 생명 걸고 위신싸움 해선 안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날치기 예산으로 조성된 국민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보정국으로 호도하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의도가 내재돼 있지 않나 심각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내적으로 예산 날치

기로 보여준 ‘본배정치’를 안보정국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제 사격훈련은 일상적 사격훈련이 아니라 군사작전이었으며 사격훈련 강행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본분을 망각한 무모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하면서 안보를 발미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군사훈련으로 군사적 자취를 행했지만 그 결과는 한반도 사태에 대한 결정권이 한국의 손에 떠나는 형국이 됐다”며 “새로운 냉전체제로 돌아가려는 인식은 받아들이 수 없다. 평화의 길,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 대표는 KBS 라디오

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걸고 위신싸움을 해선 안 된다”며 “북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친 것을 사과하고 평화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주변 강대국이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심한다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5000만 국민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리게 된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쯤 지도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은 지도자에게 평화를 지키는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

‘집회 1번지’가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한나라 시도당 담장 허물고 나무숲 조성

‘집회 1번지’로 불리는 한나라당 광주·전남 시도당이 담장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나무숲을 조성한다.

한나라당 광주·전남시도당은 지난 15일 광주시 북구로부터 예산 2550만원을 지원받아 지상 6층·지하 1층짜리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50m 중 30m(면적 70㎡)를 걷어내고 왕벚나무·느티나무 등 9종 1480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다.

한나라당 광주·전남 시도당은 특히 담장을 허물고 자연석을 설치해 시·도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속 작은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한나라당 광주·전남 시도당은 또 거부감을 없애고 화합과 소통을 위해 당사 안에 설치된 경비초소(길이 7m·높이 2.7m)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수년 전부터 비 상시적으로 운영돼온 이 경비초소는 시위·진압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경찰관들의 경비공간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광주·전남 시도당사는 과거 ‘집회 1번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시·도민들의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피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 주요성분
 - 특수 추출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맞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발 맞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꾸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만에 화제가 되었으며 몸매가 모델급인데 거기에도 흔들며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미팅질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촉촉이든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실재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색사하니 끝까지 생생인지 몇 걸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리게 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노래하며 춤추는 뮤직홀 “카라”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특별 할인합니다!!

(뮤직시스템 인테리어 최신시설완비)

단체예약 100명 가능!! 노래방 대형룸4개

동구 대인동 우체국 신청사 인근 예약문의 | 010-6727-3966